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
	배포일자	2023년 8월 29일(화) 총 2매	
담당부서 항만연안과	담 당 자	• 친수공간팀장 이숭희 ☎458-7161 • 담당자 김형준 ☎458-7167	
사진(이미지)	☐ 없음 ▣ 있음	참고자료	▣ 없음 ☐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중구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개방

-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역무선 방파제 상부를 친수 보행로로 확장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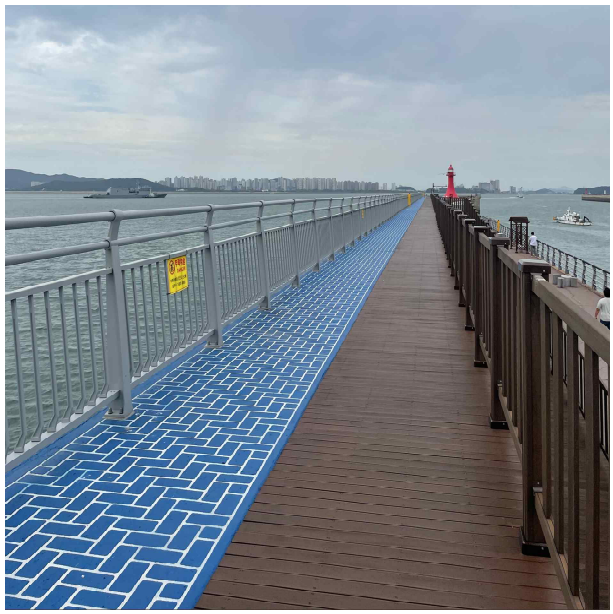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중구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.

중구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조성사업은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역무선 방파제 상부에 친수 보행로를 확장·설치해, 인천 앞바다 및 입출항 선박, 인천대교 등 해양 경관을 개방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.

약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연오랑 등대를 방파제 상부와 데크로드를 연결해, 시민들이 탁 트인 바다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길이 294m, 폭 6m의 친수 보행로를 조성했다.

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인천의 상징인 바다를 이동·경험·친수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

하겠다” 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시민이 인천 앞바다를 더 가깝게 감상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을 잇는 친수형 탐방로(둘레길, 자전거길 등)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, 내년에는 선재도~드무리 해안길, 십리포 해안길, 장경리~농어바위 해안길 사업이 완료돼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.

<공사 전·후 사진>